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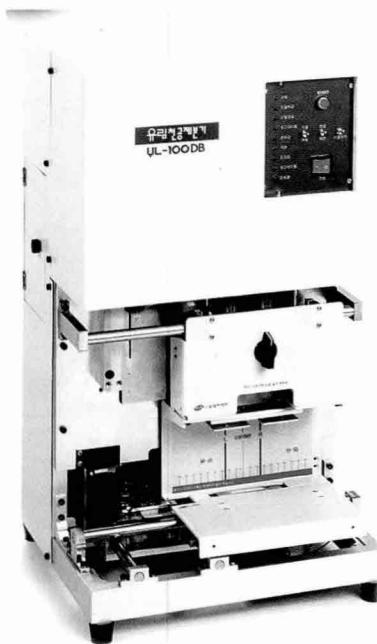
제

품

[주]유림피앤비의 자동문서 천공제본기

낱장 서류 등

쉽고 깔끔하게 천공·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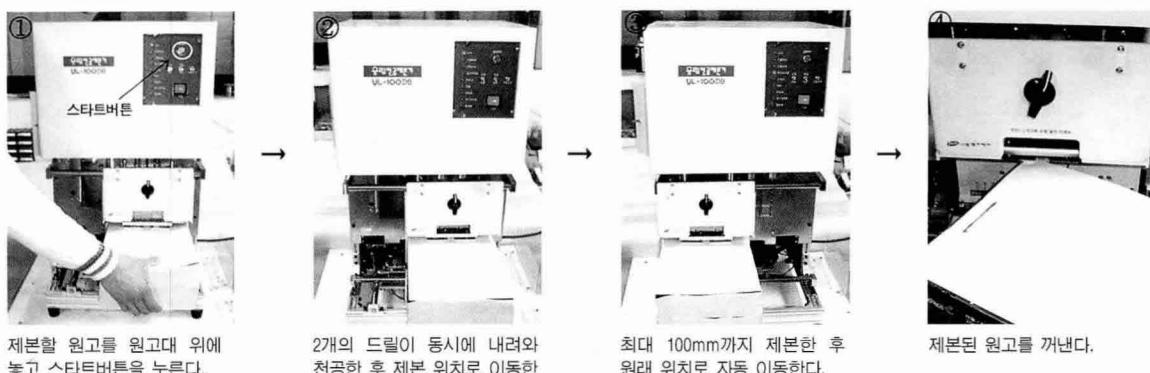
각종 서류나 영수증 등 낱장으로 돌아다니는 종이들을 모아 구멍을 뚫고 묶어주는 자동 문서 천공제본기가 선을 보여 편의성은 물론 정리정돈과 보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주)유림피엔비(대표 신영식)에서 개발한 자동 문서 천공제본기는 스타트 버튼만 한번 누르면 천공과 제본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100mm 두께까지 천공과 제본이 가능하며, 제본은 철심(핀)으로 하기 때문에 풀리거나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제본은 하지 않고 천공만을 원할 경우에는 천공스위치를 선택해 원하는 작업을 하면 된다. 이 기계를 사용해 100mm 두께의 서류를 제본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50초에 불과하다.

이 천공제본기는 시작→드릴하강→드릴상승→원고대이동→핀하강→제본→핀상승→원고대이동→핀보충 등 표시등과 알람에 있어 작업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조작 실수 없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철심은 50개가 장착되기 때문에 50묶음을 연결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제본을 위한 철심이 필요할 경우에는 표시등이 점등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과 보충이 가능하다.

기계의 크기는 440×355×680mm이며, 제본두께는 10~100mm, 제본 간격은 50mm이다. (문의 : 02-468-3255)

〈제본 순서〉



제본할 원고를 원고대 위에 놓고 스타트버튼을 누른다.

2개의 드릴이 동시에 내려와 천공한 후 제본 위치로 이동한다.

최대 100mm까지 제본한 후 원래 위치로 자동 이동한다.

제본된 원고를 꺼낸다.

폰트뱅크, 신서체 4종 발표

폰트뱅크(대표 손동원)에서 2004년 봄을 맞이하여 4종의 서체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2001년 이철수 목판글꼴모음에 이어 3년 만에 개발된 서체로 작가주의(作家主義)시리즈의 일환으로 안상수(홍익대), 한재준(서울여대) 교수 그리고 서예가 솔뫼 정현식 등의 작가가 참여하였다.

먼저 秀 시리즈 3개의 패키지는 활자공간(대표 이용재)에서 개발한 서체를 상품화한 것으로 폰트뱅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폰트디자이너 클럽의 참여작가인 이용재 실장과 함께 3개 패키지로 제작하였다.

秀 01 (안상수 활자모음 : 8종) 패키지는 안상수 교수의 활자를 모은 것으로 안체 3종 (Light, Medium, Bold) / 이상체 3종 (Light, Medium, Bold) / 미르체 1종 / 마노체 1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탈 네모꼴 글자의 대표서체로 조합형이다.

秀 02 (한재준 활자모음 : 6종) 패키지는 서울여대 한재준 교수의 공한체 3종 (Light, Medium, Bold) / 한체 3종 (Light, Medium, Bold)로 구성되어 있는 탈 네모틀 글자에 전통적인 글자



꼴 이미지를 접목시켜 사용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 서체로 역시 조합형이다.

秀 03 (심청전목판체 : 1종) 패키지는 옛 문헌에 나와있는 서체를 복원한 것으로 1905년 전주 다가서포에서 간행되어 1916년 일부 보각한 '보각을사본'을 바탕으로 제작한 고서체로 완성형 글꼴이다. 안상수 교수와 한재준 교수의 대표서체를 모은 제품으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았음에도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솔뫼민체는 최근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캘리그라피 (Calligraphy)의 디지털 서체화 계획에 따라 제작된 서체이다. 민체가 갖는 소박하면서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자유로움과 멋스러운 특징을 잘 살려 디지털서체로 작업하였다.

솔뫼민체01 眞 패키지는 민체의 가장 전형적인 서법으로 민체의 자

유스러움과 깔깔한 갈필(渴筆)의 여운과 함께 느껴지는 속도감과 투박한 질감이 어우러져 독특한 느낌을 주는 서체로 봇 터치의 섬세함을 최대한 표현하였다.

솔뫼민체02 正 패키지는 솔뫼민체 01의 느낌과 봇 터치는 살리면서 네모틀 안에 반듯하게 쓰여진 서체이며 약간은 더딘듯 중후하며 호흡을 가다듬은 맛이 나는 서체이다.

솔뫼민체03 純 패키지는 정체를 단순화하였다. 봇 터치의 섬세함은 최소화하였으나 솔뫼민체의 규범과 원칙을 순화하였다.

폰트뱅크는 이번 솔뫼민체 개발과 함께 앞으로도 서예의 디지털화 계획에 따라 여러 작가들의 글꼴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폰트뱅크는 위의 제품들은 4월30일까지 한정적으로 출시기념 할인판매중이다. 문의 : (02)2264-0656 담당 손동원 실장